

## 원어민 감수자의 자격, 능력, 직무에 관한 고찰\*

박 지 영  
(서울외대)

### 1. 들어가며

한국어와 같이 소수 언어 사용 지역에서는 항상 모국어로의 번역(L1 translation)만을 시행하기 어렵다. 한국어 원문(ST)을 읽고 외국어로 번역할 목표 언어 화자인 번역사를 찾기 어려워, 한국인 번역사들이 외국어로 번역(L2 translation)할 수밖에 없다. 이와 유사하게 550만 명이 사용하는 덴마크어의 경우에도 모국어와 전공 외국어 양방향으로 번역사를 교육하며, 양방향 번역 과목의 중요도 역시 동일하게 평가된다(Hansen 2009). UN 공식언어 중 하나인 아랍어(United Nations 2019) 번역사들 사이에서도 L2 번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관행이다(Jamoussi 2015: 173). 그러나 비모국어로의 번역, 즉 ‘L2 번역’은 다국어 화자가 많은 해외에서는 ‘비정상적인

관행(an anomaly)’으로 간주되고(Jamoussi 2015: 173, 176) ‘아마추어 수준의 낮은 품질의 번역을 만들어 낸다(yields amateurish and lower-quality texts)’(Newmark 1991: 21-24)’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L2 번역의 품질은 소위 ‘원어민 번역’, 즉 모국어로의 번역(L1 translation)을 능가할 수 없다(Jamoussi 2015: 173)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L2 번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어민 감수, 즉 외말감수가 널리 활용되어 왔다. ‘원어민 감수’에 대한 선호는 국내 정부 기관들의 번역용역 입찰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1부터 2013까지 게시된 번역 입찰 공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정부기관 대다수가 ‘원어민 감수’를 요구하면서도(박지영 2015: 105) 감수자의 한국어 읽기 능력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원문을 확인하지 않는 ‘외말감수(unilingual revision)’ 또는 ‘단일언어 감수(monolingual revision)’에 대한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외말감수(단일언어 감수)는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는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Mossop 2011-2016). 감수 절차와 품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감수는 원문을 확인하며 시행하는 두말감수(이중언어감수)임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이들 선행 연구가 원문과 번역문을 모두 읽을 수 있는 번역사 혹은 번역 전공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Robert et al. 2017; Robert et al. 2018; Terryn et al. 2017).

이에 본 연구는 1) 한영 번역을 감수하는 원어민 감수자들이 누구인지, 자격사항을 파악하며, 2) 이들이 생각하는 감수자가 갖춰야 할 능력은 무엇이며, 3) 여타 번역행위자들과의 관계 등 직업으로서의 감수에 대한 의견을 수집, 분석한다.

1) 선행연구에서는 ‘단일언어감수’, ‘이중언어감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우리 말인 ‘외말감수’, ‘두말감수’로 대체하고자 한다. 번역가이자 언어학자인 이희재의 저서(2009: 332) 중 영한 사전 등 이중언어사전을 ‘두말사전’으로 표기한 것을 따랐다. 우리 말 학술용어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연구자로서, 특히 언어와 관련된 번역학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로 생각한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1025220).

## 2. 감수자의 자격

감수는 번역 비평의 한 분야로, 번역 비평과 관련된 도덕적 고려사항들을 숙지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번역사들이 시행하는 특수한 종류의 번역 작업이다(Chakhachiro 2005: 225). 따라서 담당 번역사와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자격을 갖춘(Marin-Lacarta and Vargas-Urpi 2019: 405) 경험 많은 번역사들이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ager 1994; Gile 2005: 53). ISO 17100 표준 역시 ‘감수자들은 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모든 능력을 갖춰야 한다(Revisers have all the translator competences)’고 규정한다(3.1.5).

그러나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다. 허난테즈-모린(Hernández-Morin 2009)이 번역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감수자의 번역 경력이 그 사람의 감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라고 답했다. 세던-스트럿(Sedon-Strutt 1990)은 경험이 많은 번역사보다는 오히려 신참 번역사가 감수를 담당했을 때의 장점을 설명하였다. 한센(Hansen 2009: 269)은 번역사들의 감수 능력에 관한 종단 연구 결과를 통해, 번역 경력이 없던 학생 시절부터 이미 번역과 감수 모두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던 번역사도 있음을 밝혔다. 코(Ko 2011: 130)는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주제 전문가라면 번역 경력이 없더라도 기술적 개념이나 전문용어에 관해 감수자로서 유용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3. 번역감수능력 모델

번역감수능력(translation revision competence, TRC) 모델들은 사실상 번역능력(translation competence, TC) 모델을 확장한 것이다. 이는 번역능력 모델을 설계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PACTE(2003)가 제시한 번역능력 모델은 이중언어 구사자들이 갖춘 능력인 ‘이중언어능력(bilingual competence)’과 ‘언어외적 능력(extralinguistic competence)’에다 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추가적인 능력인 ‘도구적 능력(instrumental competence)’, ‘번역 지식(knowledge of translation)’, ‘심리-생리적 능력(psycho-physiological component)’을 더한 것이었다. 각 하위 능

력(sub-competence)의 이름은 다소 상이하지만, 트랜스컴(TransComp)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번역 능력 모델을 제시하였다(Göpferich, S. 2009).

이와 유사하게 번역 감수 능력(translation revision competence, TRC) 모델들은 번역 능력(translation competence, TC) 모델에 감수자로서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더한 것이다. 쿤즐리(Künzli 2006)는 PACTE(Process in the Acquisition of Translation Competence and Evaluation)의 2003년 TC 모델(2003)에 기반하여 감수 능력을 제안하였다. 로버트, 라마엘, 유리엘(Robert, Remael, and Ureel 2017) 역시 PACTE의 TC 모델들(2003, 2005, 2008, 2009, 2011a, 2011b, 2014, 2015), 트랜스컴(TransComp Göpferich 2008, 2009, 2013; Göpferich and Jääskeläinen 2009), EMT 전문가 집단(EMT Expert Group 2009)을 근거로 삼아 TRC 모델을 제안하였다. 동 TRC 모델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은 여러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Robert, Ureel, Remael, and Terryn 2018; Terryn, Robert, Ureel, Remael, and Hanouille 2017; Robert, Terryn, Ureel, and Remael 2017).

로버트, 라마엘, 유리엘(Robert, Remael, and Ureel 2017)의 TRC 모델은 6개 하위 능력으로 구성된 TC 모델에 감수 능력 3가지를 추가한 것이다. 추가된 능력은 번역사에게는 요구되지 않지만, 감수자라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1) 감수 지식 관련 능력(knowledge-about-revision sub-competence), (2) 감수 절차 활성화 능력(revision routine activation sub-competence), (3) 전략적 능력(strategic sub-competence)이다.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수 지식 관련 능력(knowledge-about-revision sub-competence)은 감수의 개념과 여러 특성에 관한 선언적 지식이다. 감수는 글을 다시 쓰는 것도, 재번역 작업도 아니다(Horgueline and Brunette 1998: 40). 한센(Hansen 2009)은 감수자들이 기존 번역을 거리를 두고 바라봄으로써(distance themselves from translators' previous formulations) 정당한 수정(fair corrections)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섭(Mossop 2014: 206) 또한 불필요한 변경을 일삼는 감수자는 감수를 ‘읽기’가 아닌 ‘쓰기’ 활동으로 인식함을 의미하며, 이는 ‘감수자로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bad attitudes of revisers)’라 설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로차드(Rochard 2004: 68) 역시 감수자는 기존 번역을 무시하고 번역사를 대신할 권리가 없으며, 감수자로서의 역할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섭

(Mossop 1992)은 기존 번역을 수용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감수’ 마인드로 전환하여 ‘재번역’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a mental switch from a ‘retranslating’ to a tolerant ‘revising’ frame of mind)이 감수 교육의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또한 감수자가 갖춰야 할 선언적 지식에는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가도 포함된다. 모섭(2011: 99-113)은 감수 항목(revision parameter)을 의미 전달(정확성과 완결성), 내용(논리 및 사실의 확인), 언어 및 문체(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언어 표현 등), 편집(오타자, 레이아웃 등)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둘째, 감수 절차 활성화 능력(revision routine activation sub-competence)은 필요한 감수 절차를 상기하여 시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감수 과정에서 번역사와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다. 감수자가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번역사가 동의하지 않거나 화를 낸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Ko 2011: 132). 따라서 감수자들은 시행된 수정이 주관적 판단에 의한 변경이 아니며, 왜 그러한 수정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Chakhachiro 2005: 235). 감수자가 제시하는 타당한 의견은 번역사에게 의미 있는 피드백이 된다. 감수자는 또한 번역사와의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Künzli 2006). 한센(Hansen 2009) 역시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explain)’으로 설명하며 감수자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로버트와 브루넷(Robert and Brunette 2016: 327-332)은 경력이 긴 감수자일수록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특히 감수자들이 변경에 대해 설명한 분량은 감수 경력 기간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번역 경력 기간이나 원천언어 능력과는 연관성이 없어, 이 두 가지가 감수된 부분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감수자’로서의 능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셋째, 전략적 능력(strategic sub-competence)은 감수를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능력이다. 감수자는 전략적 능력을 발휘해 번역본에 나타난 문제를 파악하고 평가하며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감수를 통해 변경된 부분은 필수적 변경(necessary changes), 불필요한 변경(unnecessary changes), 오류 간과(errors overlooked), 오류 추가(errors introduced)로 구분할 수 있다(van Rensburg 2017: 73). 전략적 능력을 갖춘 감수자라면 필수적 변경은 더 많이, 그 외의 변경은 더 적게 시행하여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작업한다.

전략적 능력을 통해 감수자는 여러 상이한 하위 감수 능력들을 활성화시키고, 자신이 감수자로서 가진 취약한 하위 능력을 강점을 가진 다른 능력으로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천 언어(SL)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감수자라 하더라도 목표 언어(TL) 능력이 뛰어나다면, 이를 통해 부족한 원문 독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 다양한 하위 감수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작업하는 전략적 능력을 통해, 감수의 전체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

#### 4. 감수자와 여타 번역행위자

번역행위론에 따르면 번역은 등가 달성을 위한 단순 언어의 변환이 아닌, 원문(ST) 생산자, 발주자, 의뢰인, 번역사 등 여러 주체들의 팀워크가 필요한 복잡다단한 행위이다. 이는 번역 실무를 번역사와 고객, 목표 독자 등 번역 관련 당사자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동 이론에서 ‘목표 텍스트 생산자’는 번역사를 지칭하며(먼데이 2007: 104), 감수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다. 하지만 감수가 품질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임을 고려하면, 감수자 역시 주요 번역행위자임이 틀림없다.

쿤즐리(Künzli 2009)는 감수자와 다른 번역행위자 간의 관계를 ‘감수자 윤리(ethics of revisers)’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는 ST 생산자, 번역사, 의뢰인(LSP), 나아가 감수자 자신에 대한 ‘충실성(loyalty)’을 달성하기 위해 감수자가 갖춰야 하는 태도적인 측면이다.

감수자는 번역본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을 존중함으로써 ‘번역사에 대한 충실성(Loyalty to the translator)’을 실천해야 한다(Künzli 2009). 부당한 문체적 변경을 통해 번역사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거나, 반대로 필요한 변경을 하지 않아 번역사가 부적절하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다(Chakhachiro 2005: 236). 이는 감수자의 ‘공정성(fairness)’, ‘관용(tolerance)’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로버트(Robert 2012)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 감수자가 불필요한 변경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 렌스버스(van Rensburg 2017: 79)의 실증 연구는 필수적 변경을 수행하는 감수자의 능력과 번역 경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감수자는 또한 번역을 읽고서도 ST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만 문장을 수정하며, 지나친 윤색을 하지 않으므로써 원문 ‘저자에 대한 충실성(the reviser’s loyalty to the source-text author)’을 보여야 한다. ‘번역회사에 대해 충실하기(the revisers’ loyalty to the commissioner and the translation agency)’ 위해서는, 감수를 요청받은 때에 시간 제약 등 상황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락하고(Künzli 2009) 능력 밖의 감수는 말지 말아야 한다(Chakhachiro 2005: 236). 감수료 역시 감수에 소요되는 노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청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수에 필요 이상의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므로써 ‘감수자 자신에 충실(the revisers’ loyalty to themselves)’해야 한다(Künzli 2009). 이상을 볼 때, 윤리적 감수자는 정직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는 유능한 팀플레이어라 할 수 있다.

### 5. 연구방법

본 연구는 원어민 감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주되는 한영 번역을 검토하는 원어민 감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1) 감수자로서의 자격 사항에 관한 객관식 문항, 2) TRC 모델에서 제시된 각 감수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묻는 객관식 문항, 3) 여타 번역행위자와의 협업 및 감수자로서의 만족도를 묻는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감수 실무 경력이 있는 원어민을 모집하기 위해 에이전시 12곳을 선정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다. 국내 정부기관의 번역 용역을 수주한 실적이 있어, 번역 사업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에 접촉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내부 원어민 감수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최종적으로 통번역대학원 부설 번역에이전시 1곳과 그 외 업체 1곳만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이들을 통해 원어민 감수자 각 4명, 6명을 모집하였다. 이에 본 저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원어민 감수자 3명을 추가 모집하였다. 이 3명은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프리랜서로, 특정 에이전시 소속이 아니다.

## 6. 분석 결과

### 6.1 원어민 감수자의 자격과 감수 절차

〈표 1〉 연구참여자

이름	나이(세)	성별	경력(년)	국적
P1	37	M	15	CA
P2	49	M	15	US
P3	32	M	8	US
P4	30	M	8	US
P5	66	M	30	US
P6	40	M	20	US
P7	26	F	0.5	PH
P8	22	F	0.5	PH
P9	26	F	7	PH
P10	23	F	0.5	PH
P11	50	M	30	PH
P12	29	F	9	PH
P13	57	M	20	AU

모집된 총 13명의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7.5세였으며, 평균 경력은 12.6년이었다. 남성 8명 여성 5명이었으며, 국적별로 필리핀 6명, 미국 5명, 호주 1명, 캐나다 1명이었다. 필리핀 국적의 감수자 6명은 모두 동일한 업체에서 소개한 감수자였다<sup>2)</sup>. 설문의 첫 부분은 원어민 감수를 시작한 계기가 된 자격 요건, 작업 방식 등에 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으며, 복수 응답이 가능했다.

감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자격사항은 ‘영어 원어민(76.9%)’이었다. 61.5%는 어학, 글쓰기 관련 학위(신문방송학, 영문

2) 국내에서 ‘원어민’ 감수라 하면 일반적으로 북미나 영국 출신 영어사용자를 떠올린다. 하지만 본 연구 과정에서 예상 외로 필리핀 국적의 감수자를 고용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필리핀 국적 참여자들은 모두가 영어를 자신의 모국어라 답했으나, 필리핀과 같이 영어가 공용어인 국가의 감수자가 과연 ‘원어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단,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현황은 ‘원어민’에 대한 국내의 일반적 인식과 다르면서도,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원어민 감수’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학, 언어학 등)라 답했다. 영어를 가르치거나 기자 등 글쓰기 관련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 역시 각 53.8%의 연구참여자가 선택했다. 그 밖의 자격은 주제 분야에 관한 전문성(38.5%), 번역 경력(30.8%), 한국어 구사능력(15.4%)이었다.

반면 원천언어인 한국어 구사능력은 감수자가 되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었다. 연구참여자 13명 중 8명(61.5%)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어를 학습한 방식에 대해서는 4명만이 답했다. 나머지 4명이 학습법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은 기초적인 수준의 한국어만 구사하므로 굳이 학습법에 대해서는 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본다. 한국 유학(15.4%), 한국인 배우자(15.4%)를 통해 한국어를 배웠거나, 한국어 전공(7.7%), 한국어가 부모님의 모국어(7.7%)라고 답했다. 스스로 평가한 영역별 한국어 능력은 읽기 능력에 대해 2명이 상급, 6명은 하급이라고 답했다. 쓰기 능력은 상급 1명, 중급 1명, 하급 6명, 듣기 능력 역시 동일하게 상급 1명, 중급 1명, 하급 6명이었다. 말하기 능력은 상급 1명, 중급 2명, 하급 5명이었다. 네 영역 모두 한국어 실력이 ‘상’이라고 응답한 연구참여자는 1명이었으며, 특히 감수 시 한국어 원문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읽기 실력을 ‘상’으로 응답한 연구참여자는 2명 뿐이었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원천언어 능력

	상	중	하	계 (명)
읽기	2	0	6	8
쓰기	1	1	6	8
듣기	1	1	6	8
말하기	1	2	5	8

감수 시 ST, TT를 읽는 순서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선택한 것은 세 가지 읽기 방식이었다. 번역본을 읽은 후 바로 수정(‘TT 읽기 → 감수’), 번역을 읽은 후 필요시에만 원문을 확인한 후 수정(‘TT 읽기 → 필요시 ST 확인 → 감수’), 일단 감수한 후 번역사에게 의문점에 대해 질의한 다음 필요시 다시 감수(‘TT 읽기 → 감수 → 번역사와 소통 → (다시 감수)’한다를 각 30.8%의 응답자가 선택했다. 그 외 ‘TT 읽기 → 감수 → ST/TT 비교 → (감수)’, ‘ST/TT 비교 → 감수 → TT 읽기 → (감수)’를 각각 15.4%의 연구참여

들이 선택했다. 대체로 TT부터 읽는 방식으로 작업함을 알 수 있다. ST를 확인하는 경우 TT를 읽은 후에야 본다. 처음부터 ST와 TT를 비교하며 읽거나(‘ST/TT 비교 → 감수’) ST부터 확인한 후 ST와 TT를 비교하여 감수하는 방식(‘ST 읽기 → ST/TT 비교 → 감수 → TT읽기 → (감수)’)은 각각 7.7%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감수 과정에서 ST를 먼저 읽거나 처음부터 ST와 TT를 비교하기 보다는, TT를 우선적으로 읽어 온전히 번역본에 집중하여 읽고 평가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역과 감수를 모두 하는 경우, 어떤 작업을 더 선호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5명이 응답했다.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났던 2명은 번역을 선호하였는데 번역료가 더 높고 감수를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재번역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서(‘better pay; often revising forces me to retranslate parts of the text, anyway’ P5), 번역 품질이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감수가 괴롭다(‘Translation quality is generally poor, making revising often frustrating’ P6)는 설명이었다. 그 외 3명은 ‘감수가 더 쉬워서(It’s easier for me to revise P9)’, ‘감수를 통해 내용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만드는 것을 더 잘하고 속도도 빠르므로(With my background, I am more well versed and faster in ensuring the accuracy and appropriateness of the content. P9)’ 등으로 답했다.

고용 형태와 관련하여 38.5%는 풀타임 직원이라고 답하였고, 이들은 모두 동일한 업체 소속 필리핀 감수자들이었다. 나머지 61.5%는 프리랜서였다. 감수 의뢰 고객은 LSP가 8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업(53.8%), 개인 번역사(46.2%), 연구자 등 번역사가 아닌 개인(38.5%), 정부 기관(30.8%) 순이었다. ‘LSP’ 외에도, 개인과 기관이 공히 감수 의뢰 고객임을 알 수 있다.

감수하는 텍스트 종류와 관련하여 홍보/마케팅 텍스트는 100%, 즉 모든 연구참여자가 의뢰받는다고 응답했으며, 뉴스, 보고서, 학술연구 등 정보적 텍스트의 비중 또한 92.3%로 높았다. 그 외 법률 문서(69.2%),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 TV영상(61.5%), 영상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상에서 사용되는 게임 등의 기타 영상 번역(53.7%)을 감수하며, 문학작품의 감수는 38.5%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감수 속도는 쿤즐리(Künzli 2009)가 제시한 감수 윤리 항목 중 ‘감수자 자신에 대한 충실성’과 관련 있다. 감수 속도에 대한 응답은 극명하게 두 부류로

갈랐다. 필리핀 감수자들은 시간당 1,000 ~ 2,000 단어를 감수한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은 시간당 300단어라고 답한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구체적인 속도를 제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번역의 품질('It really depends on the quality of the translation. I'm sorry - but I really can't generalize.' P1), 장르 등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었다('I have no idea. I've never measured and it would vary dramatically with the text.' P2, 'No idea all texts are different', 'Varies depending on genre, degree of complexity and quality of original translation' P3).

감수료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연구참여자는 66.7%였으며, 대체로 영어 250 단어당 미화 8.3달러에서 11.5달러를 받는다고 답변했으며 최고가는 15달러였다. 구체적인 감수료를 답하지 않은 나머지 33.3%의 연구참여자들은 업체에서 주는 대로 받는다고 답한 1명을 제외하면, 대체로 '문서를 빨리 검토하여 감수료를 알려준다(I have a quick look at the project, and then give a quote for the price. P1)'와 같이 매번 감수료를 결정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필리핀 감수자 6명은 소속 업체가 같으나 경력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수료는 모두 영어 단어 당 USD 0.014라고 동일하게 답해 경력에 따른 감수료 차등이 없었다.

감수할 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묻는 질문에 모든 응답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100%), 다음으로 파워포인트(69.2%), 한글(46.2%) 순이었다. 그 외 각 1명의 응답자(7.7%)가 메모큐(memoQ), 엑셀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 6.2 TRC에 대한 의견

다음으로 모집한 영어 원어민 감수자들을 대상으로 TRC를 구성하는 각 하위 능력(Hansen 2008; Künzli 2006, 2009; Robert, Remael, and Ureel 2017)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각 하위 항목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 문항에 '매우 그렇다(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점)'로 답하도록 하였다. 번역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다수 연구참여자와 관련이 없거나(번역 능력 및 경력),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감수의 개념에 관한 지식, 감수 항목에 관한

지식, 공정·관용적 태도), 그리고 설문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하위 능력(ST·TT 비교 절차 실행 능력, ST와 등가 달성 능력)은 질문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하위 능력은 <표 3>에서 '\*'로 표시하였다.

<표 3> 번역감수능력에 대한 설문 결과

역할		번역감수능력(TRC)		
번역사	이중언어구사자	이중언어 지식	SL 읽기 능력	2.5
			TL 쓰기 능력	5
		언어 외적 지식	주제 지식	4.5
			문화 지식	3.9
	번역 능력 및 경력*			-
	감수자	감수 지식	감수의 개념에 관한 지식*	-
			감수 항목에 관한 지식*	-
		감수 절차 활성화 능력	ST·TT비교 절차 실행 능력*	-
			의사소통 능력	3.1
		전략적 능력	공정·관용적 태도*	-
ST와 등가 달성 능력*			-	
공정한 감수료 청구 능력	4.1			
협력적 태도	4.3			
	시간 관리 능력	4.9		

연구참여자들은 TL 쓰기 능력을 5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SL 읽기 능력은 2.5점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감수 시 ST와 TT를 읽는 순서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ST를 전혀 읽지 않거나 필요시에만 확인한다고 답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언어외적 지식과 관련하여, 주제 지식(4.5)을 문화 지식(3.8)에 비해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시간 관리 능력 역시 4.9점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협력적 태도는 4.3점으로, 납기 등 여타 번역행위자의 요구 사항을 되도록 수용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일면 유사해 보이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는 3.1점으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평가하였다. 앞서 ST, TT를 읽는 순서를 묻는 문항에도 30.8%만이 감수 과정에서 번역사와 소통한다고 답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구참여자들은 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조한 여러 선행 연구와는 사뭇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한 감수로 청구’는 4.1점이었다.

### 6.3 직업으로서의 감수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주관식 문항을 통해 번역사, LSP와 같은 여타 번역행위자들과의 협업,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감수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첫째, 감수자들은 글쓰기 내지는 글을 다듬는 작업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글을 매끄럽고 읽기 쉬우며 설득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아름답게 만들고(‘I like to work with language; and to make language smooth and readable and compelling, and in some cases, beautiful.’ P3), 문장의 흐름을 개선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데서(‘give flow and succinctness to a piece of literature’ P4) 큰 기쁨을 느낀다고 답했다. 연구참여자 P9, P12도 유사하게 설명했다.

무척 만족한다. 감수 과정에서 나 또한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Very satisfi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I am also improving my writing skills.’ P9)  
감수자로서의 일에 상당히 만족한다. 영어 번역된 문서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기 때문이다. (‘I am highly satisfied with my job as an editor because I enjoy improving the overall content of documents translated to English.’ P12)

나아가 감수 과정에서 여러 분야에 대해 배우게 되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감수자들은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읽고 이해하는 것을 즐기며(‘likes to read and understand various subjects’ P3), 다양한 산업의 문서를 다루면서 관련 내용에 익숙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여러 종류의 글쓰기에 대해 알고 필요한 수준으로 감수할 수 있게 된다는 점(‘Given that the documents I handle are about a variety of industries, it has made me familiar and, ultimately, knowledgeable of the different kinds of writing and the appropriate levels of revising they

require.’ P9)을 긍정적 측면으로 생각했다.

다양한 주제를 접하면서 내 감수 스킬이 늘 뿐 아니라, 내가 작업하는 모든 파일에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It is also great that I am handling different file types and am being exposed to a wide range of topics; that way, not only do I enhance my editing skills but I also learn something new with every file that I work on.’ P12)

이와 같이 글쓰기 자체를 즐기는 감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감수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표현으로만 감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It is difficult for me to speak in generalities, deprived of a particular context.’ P3) 또한 지적되었다.

또 다른 장점은 감수자 본인과 번역사가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었다. 연구참여자 P1, P3, P7은 감수를 통해 번역사를 도와주거나 가르친다고 여겼으며, 이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권위적으로 들리긴 싫지만, 번역사들이 감수를 통해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훨씬 만족스러울 것이다 [중략] 물론 나도 그들에게서 배운다(‘I really hate to maybe sound paternalistic, but if they (translators) have the time to learn a little bit from the work it makes it so much more satisfying.’ [중략] ‘Of course, I also love learning from the translators.’ P1)

영어를 가르치는 최상의 방법이다. 보람도 있다(‘It has been much better that teaching English could ever be. Also, the challenge is rewarding.’ P5)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특히 고객들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그렇다.(‘Satisfied in a way that I like what I’m doing, especially the idea that I get to help clients achieve their respective goals.’ P7)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 요소이다.

중학교 교과서부터 대법원 판결과 같은 법률 문서까지 감수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보적인 텍스트들을 여러 수준에서 폭넓게 다룰 수 있다.('The texts I revise range from Middle School textbooks to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and legal arguments. As a result, I am exposed to a range of informative texts that influence Korean society at multiple levels.' P13)

그밖에 P2는 감수가 윤리적 타협이 요구되지 않는 도덕적인 직업이며('a rare ethical profession in a global society where I feel many jobs ask me to compromise my values' P2),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며('The lack of geographical limits is a great boon to me as a parent' P2) 일정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much enjoy the control over my schedule' P2)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allowed me to make a secure living' P2)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스로의 기준에 부합하는 소수의 파트너들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고('I can work with hand-picked partners who I feel live up to my standards' P2) 뛰어난 품질의 작업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서 얻는 기쁨과 자부심('satisfaction from producing high-quality work and it is a personal source of pride' P2)에 대해 적었다. P10은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I don't mind working for the whole day)', P11은 '(감수를 하게 되어) 운이 좋았다('feel lucky to have it')'며 역시 직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둘째, 직업상 단점으로는 품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감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잦고 경제적 보상이 적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좋은 글쓰기와 좋은 감수는 하루 중에, 혹은 다른 날에 걸쳐 다른 시간대에 여러 번 상세히 읽어내야 가능하다('Good writing and good editing can only happen with multiple read-throughs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or on different days' P3), '고객과 번역사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It can be difficult for clients/translators to understand the above-mentioned.' P3)는 것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 P2는 감수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추가적인 수정을 통해 최종 감수본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일하는데,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걸림들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감수를 신속히 진행하고 감수료를 낮추기 위해('effort to cut costs and hasten the process' [중략] 두 번의 감수가 필요하고 그 중간에 번역사와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not understanding that two edits are required with communication with the translator in between.' [중략] 이와 관련해서 감수 초안만 확인하고, 더 감수해야 하는데도 번역사나 LSP가 내(감수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즉각 고객에게 납품을 해버린다 - '충분히 잘 된 것 같고 바빠서 그냥 보냈어요.' (Related to this is submitting a draft edit to the client without my permission despite it needing further revision - 'it seemed good enough and I was in a hurry so I just sent it along.' P2)

촉박한 마감일 통보는 번역사와 LSP가 공통적으로 야기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연구참여자 P13은 '가끔 마감일이 말도 안 되게 짧게 정해지기도 하여, 이 경우 번역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Occasional unreasonable expectations in terms of turn-around deadlines P13)'고 적었다. 마감일 한 두 시간 내인 경우도 있다('Deadlines that are given within a couple of hours' P11). 무리한 마감일을 제시하면서도 미리 이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mainly submitting texts late for a prearranged schedule or sending texts unannounced and shortly before a deadline' P2), 의뢰인이 '별로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대기도 한다('It doesn't have to be good, but indeed these 100 pages by tomorrow morning.' P1). 심지어 근무 외 시간에 연락해오는 경우도 있다('Attempts by translators to contract me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P1).

모든 응답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금전적 보상이 매우 낮다는 불만도 있었다. P3은 이 때문에 감수 작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스스로 원해서 에디터나 '감수자', 교정자로 일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감수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도와주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혹은 (대부분은) 프리랜서로서 추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 한다. 내 경우 상황이 어려운데, 그렇게 싼 가격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미국 (특히 뉴욕에서) 생계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벌지 못한다. 그래서 편집/감수일은 시간 날 때 임시로 할 수 있는 프리랜스 일일 뿐이다. [중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나 현재의 문제에 대해 번역사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안



다('It's helpful to keep in mind: most people who edit or revise or proofread do not want to be editors or 'revisers' or proofreaders. They are doing it in order to help (in some cases), or to make a living, or make extra income as a freelancer (in most cases). In my current situation, it is difficult because I am not exactly a cheap editor/proofreader, yet I do not make enough money to support myself in the US (in New York City, particularly). So, editing/proofreading is only something I can do as temporary freelance work in my spare time. [중략] Therefore, in conclusion, I do not usually blame the translator for the situation or challenges at hand. I understand that the conditions and situation is out of their control to a large extent. P3)

낮은 감수료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지급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그러나 이제는 감수를 완료하고 몇 주 후에 감수료를 받는데 익숙해 졌다 but now I have become accustomed to receiving pay several weeks after I have completed my work.' P1, '업체에 따라서는 지급이 아주 늦는 경우도 있다 Depending on the agency, fees can be paid extremely late.' P4). 그 외 업무가 특정 기간에만 몰려 건강이 걱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업무량을 연간 일정하게 나눠 일정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일의 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만족스러우나 11월에서 설날까지 연말에 집중된 물량을 1, 2, 3월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I would like to spread out my annual workload so that the work is more consistently distributed. Basically, while I am satisfied with my overall amount of work, I wish I could take some of the work from the end-of-year rush from November through Seollal and shift it late January, February, and March. P2).

셋째, 번역사들과 협업하는 데 있어 경험하는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감수 의견을 수용하는 번역사의 태도와 번역 실력에 관련되었다. 연구 참여자 대다수는 번역사들이 대체로 협조적이라는 의견이었다('To date, I have found translators to be cooperative' P13). 하지만 연구참여자 P4는 감수된 내용에 대해 상세히 따져 묻는 번역사도 있다('Rarely. Certain translators may nitpick, but I've rarely experienced this.' P4)는 점을 드물 게 발생하는 불편 사

항으로 적었다. P5는 한국인 번역사들은 감수자의 의견에 대해 고마워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목표 언어 원어민인 번역사의 경우 오히려 자신의 영어를 비판 받기 싫어한다고 적었다('The biggest problem is encountered when the translator is a native English writer, because such a person will dislike being criticized for poor English writing. Koreans who ask for my editing appreciate and learn from what I do for them.' P5).

가장 큰 문제점은 번역의 품질이 매우 낮은 경우이다. 연구참여자 P6은 통번역대학원 출신이 아닌 번역사들의 경우, 번역 품질이 다소 또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With the exception of graduates of GSIT, the translations that I have encountered during my career are generally slightly to extremely poor. P6). 번역본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ST를 과도하게 직역해서 말이 길어지고 의미가 모호해 지거나('Translators directly translates the original text, which leads to wordiness and ambiguous meanings.' P8), 글로서리나 고객별로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번역사도 있다('Their failure to adhere to certain terms in the glossary or to the rules in a client-specified guideline.' P9). 심지어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번역된 경우도 있다('There were instances wherein I was assigned with poorly translated documents, to the point where some texts were totally incomprehensible.' P12).

넷째, LSP와 관련해서는 인력 운용 방식과 관련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하나의 번역을 여러 명의 번역사에게 나눠 할당해 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방식에 차이가 생긴 경우 감수가 너무 힘들어 진다('Consistency has been an issue with translation agencies as they can sometimes assign projects to more than one translator, which causes several differences in terminologies and sentence construction, making the reviser's work all the more tortuous.' P9). 감수자가 의문 사항을 번역사에게 직접 질의하고 소통하도록 허용하지도 않는다(Availability of translators is also an issue as some cannot get back to me immediately regarding my queries.' P9). 감수료가 저렴하고('I do not work with translation agencies; they are cheap with payment and do not allow me to contact the client. P5) 전반적으로 번역 품질에 신경 쓰지 않는다('Agencies do

not generally care about the quality of translation, especially Korean into English.' P6)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수라는 직업의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는 예상 외로 감수자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글쓰기에 관한 훈련을 더 받고 싶다('training on academic writing/editing' P7), 단어 실력을 확장해서 최대한 쉽게 이해되는 글을 쓰고 싶다('expand my vocabulary and write as natural as possible for readers to understand' P8), 텍스트 분석 능력을 키우고 싶다('improve my analysis of whatever text I am revising' P10), 홍보용 텍스트에 나오는 표현들에 익숙해지고 싶다('familiarize myself with terms that are commonly used in promotional materials' P12) 등 근본적으로 감수 능력 자체를 높이고 싶다는 의견이 비교적 경력이 짧은 감수자들 사이에서 제시되었다.

나아가 한글을 배워서 번역이 정확한지,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직접 확인하여 수정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종 텍스트가 제대로 되었는지 한국어 원어민 동료에게 묻지 않아도 되도록('so that I don't have to ask a Korean L1 colleague to confirm if the final text is as it should be') (P1)

텍스트가 정확히 번역되었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게('somehow check if texts have been accurately translated') [중략]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파악하여('capture the intended meaning of the author') (P12)

원문에서 해당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enable me to more quickly identify and correct L1 interference') (P13)

## 7.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원어민 감수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서 발주되는 한영 번역을 감수하는 원어민 감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원어민 감수자들은 단순히 원어민일 뿐 아니라, 어학 전공자 혹은 관련 업종의 종사자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원어민'이었던 점이 감수자로 선정된 가장 큰 요인이었다. 하지만 영어 강이나 글쓰기

등 원래 영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감수자로서 번역사들에게 좋은 영어 표현을 알려주고, 명확하고 가독성이 높은 텍스트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의뢰인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보람,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원어민 감수자들이 원천 언어인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 대다수가 한국어 소통 능력이 있으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모든 영역에서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답했다. 작업 방식과 관련해서는, TT부터 읽음으로써 TT의 가독성과 작업 효율을 높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ST를 확인하는 하더라도 TT를 읽은 후에 읽는다. 처음부터 ST와 TT를 비교하며 읽는 비율도 낮았다.

LSP 외에도 개인과 기관 모두 감수를 의뢰하며, 특히 개인 의뢰자 중 번역사가 아닌 일반인 역시 번역사만큼 높은 비율로 의뢰한다. 전체적으로 작용적 텍스트와 정보적 텍스트의 감수 수요가 가장 높고, 문학 작품 등 서적의 감수는 비교적 수요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당 1,000 ~ 2,000 단어를 감수한다고 답한 필리핀 감수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번역의 품질과 텍스트에 따라 감수 속도가 다르다고 답했다. 감수 속도에 대해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감수자들이 생산성보다는 품질을 더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감수료나 감수에 할애하는 시간을 의뢰된 텍스트에 따라 조절함으로써 감수자 본인과 LSP에 대해 충실성을 달성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감수 능력에 대한 원어민 감수자들의 인식은 그들이 경험하는 감수 작업의 실무적 제약 사항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원어민 감수자들은 자신들의 한국어 실력 부족과 한국 번역사와의 소통이 어려운 업무 구조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감수 하위 능력의 중요성은 낮게 평가하였다. 일례로, SL 읽기 능력을 중요성이 가장 낮은 감수 하위 능력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개선 사항으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답변이 많았다. 따라서 SL 읽기 능력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한 것은 애초에 원어민 감수자들이 SL인 한국어 능력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어쨌든 감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결과이며, 실제 감수자로서의 SL 읽기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닐 수도 있다.

감수자들은 협력적 태도를 중시하였으나, 번역사나 LSP들이 요구하는 짧은 납기를 수용해야 하는 점을 주요 직업적 불만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협력적 태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 (번역사와의)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은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어민 감수자들이 애초에 ST를 읽을 능력이 없고 번역 경험 역시 없으므로, 번역사와 소통함으로써 원문과의 등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을 수 있다. 나아가 의문 사항을 번역사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감수자가 질의하고 답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LSP의 업무 구조 상 감수자와 번역사가 자유롭게 소통하기 어렵다. 이러한 업무 환경에서 감수를 소통이 중요하지 않은 작업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감수자들은 1) TT를 하나의 독립적인 텍스트로 간주하거나 2) 감수를 협업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독립적 개인 작업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번역사와의 소통은 감수자의 SL 읽기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다. 감수자와 번역사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번역사와 LSP 역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감수 단계에 적절한 시간을 배분하며 감수자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감수 인력의 다양화 및 관련 감수 교육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별 인건비 차이에서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필리핀 감수자들은 상대적 소득 수준의 격차로 다른 국적의 연구참여자와 달리 감수료를 포함한 직업으로서의 감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필리핀 감수자들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으나 연령 또한 낮은 만큼, 감수와 관련하여 글쓰기, 한국어, CAT툴 사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학습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영미권과 달리 필리핀, 인도 등의 국가는 현지 언어가 모국어이면서 영어를 공용어로 함께 사용한다. 감수자의 교육 수준과 배경에 따라 영어 실력의 편차가 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절반은 단기기간이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SL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본 반면, 국적이 필리핀인 감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문화소 등의 번역을 감수할 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필리핀을 비롯해 감수 단가가 낮은 국가로부터의 감수 인력 공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학령 인구의 감소로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 또한 늘어날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여러 언어의 모국어 화자들을 번역사 혹은 감수자로 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번역과 감수는 두 언어 간의 차이와 문화를 이해하는 최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대학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감수 인력 공급의 글로벌 다변화 현상이 번역과 감수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나아가 이와 같은 기회를 교육과 인력 양성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먼데이, 제러미 (2007) 『번역학 입문 (정연일, 남원준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원서출판 2001).
- 모섭, 브라이언 (2011) 『번역가를 위한 편집과 교정 (윤일환 역)』, 서울: 동인. (원서출판 2006).
- 박지영 (2015) 「미국, 유럽, 중국, 캐나다, ISO 번역 표준에 관한 복수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6(2): 33-61.
- 이희재 (2009) 『번역의 탄생』. 서울: 교양인.
- Chakhachiro, Raymond (2005) 'Revision for Quality', *Perspectives* 13(3): 223-238.
- Gile, Daniel (2005) *La traduction. La comprendre, l'apprendr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Göpferich, Susanne (2009) 'Towards a Model of Translation Competence and Its Acquisition: The Longitudinal Study Transcomp', in Susanne Göpferich, Arnt Lykke Jakobsen, and Inger Mees (eds) *Behind the Mind, Methods, Models and Results in Translation Process Research*, Copenhagen: Samfundslitteratur, 11-37.
- Göpferich, Susanne, Arnt Lykke Jakobsen, and Inger M. Mees (eds) (2009)

- Behind the mind: Methods, models and results in translation process research*. Vol. 37. Samfundslitteratur.
- Göpferich, Susanne and Riitta Jääskeläinen (2009) 'Process Research into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Competence: Where Are We, and Where Do We Need to Go?',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0(2): 169-191.
- Göpferich, Susanne (2008) *Translationsprozessforschung: Stand, Methoden, Perspektiven, Translations-Wissenschaft*, Tübingen: Narr.
- Göpferich, Susanne (2013) 'Translation Competence: Explaining Development and Stagnation from a Dynamic Systems Perspective', *Target* 25(1): 61-76.
- Hansen, Gyde (2009) 'The Speck in Your Brother's Eye - the Beam in Your Own. Quality Management in Translation and Revision', in Gyde Hansen, Andrew Chesterman, and Heidrun Gerzymisch-Arbogast (eds) *Efforts and Models i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Research: A Tribute to Daniel Gile* Amsterdam: Benjamins, 255-280.
- Hernández-Morin, Katell (2009) 'La révision comme clé de la gestion de la qualité des traductions en contexte professionnel', Doctoral dissertation, Sous Le Sceau De L'université Européenne De Bretagne.
- Horguelin, Paul A., and Louise Brunette (1998) *Pratique de la révision*. Brossard, Québec: Linguattech.
- Jamoussi, Rafik (2015) 'Exporting Cultural Goods through the Medium of Translation in the Arab World: the (Not So) Strange Case of L2 translation', *The Translator* 21(2): 173-188.
- Ko, Leong (2011) 'Translation Checking: a View from the Translation Market', *Perspectives* 19(2): 123-134.
- Künzli, Alexander (2009) 'The Ethical Dimension of Translation Revision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8: 42-56.
- Künzli, Alexander (2006) 'Teaching and Learning Translation Revision: Some Suggestions based on Evidence from a Think-aloud Protocol Study', *Current Trends in Translation Teaching and Learning* 9-24.
- Marin-Lacarta, Maialen and Vargas-Urpi Mireia (2019) 'Translators revising translators: a fruitful alliance', *Perspectives* 27(3): 404-418.
- Mossop, Brian (1992) 'Goals of a Revision Course.' In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raining, Talent and Experience', in Cay Dollerup and Anne Loddegaard (eds) *Papers from the First Language International Conference*, Elsinore Denmark. Amsterdam: John Benjamins. 411-420.
- Mossop, Brian (2011-2016) *Revision in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Onlin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Mossop, Brian (2014) *Revising and Editing for Translators*, third edition, London: Routledge.
- Newmark, Phillip (1991) *About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PACTE (2003) 'Building a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in F. Alves (eds) *Triangulating translation: Perspectives in Process Oriented Research*, Amsterdam: John Benjamins, 43-66.
- PACTE (2005) 'Investigating Translation Competenc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Meta* 50(2): 609-619.
- PACTE (2008) 'First Results of a Translation Competence Experiment: 'Knowledge of Translation' and 'Efficacy of the Translation Process'', in J. Kearns (eds)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ing: Issues, methods and debates*, London: Continuum, 104-126.
- PACTE (2009) 'Results of the Validation of the PACTE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Acceptability and Decision Making',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0(2): 207-230.
- PACTE (2011a) 'Results of the Validation of the PACTE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Translation Problems and Translation Competence', in C. Alvstad, A. Hild, and E. Tiselius (eds) *C. Methods and strategies of process research: Integrative approache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317-341.
- PACTE (2011b) 'Results of the Validation of the PACTE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Translation Project and Dynamic Translation Index',

- in Sharon O'Brien (eds) *Cognitive Explorations of Translation*, London: Continuum, 30-53.
- PACTE (2014) 'First results of PACTE Group's Experimental Research on Translation Competence Acquisition: The Acquisition of Declarative Knowledge of Translation', in R. Muñoz Martín (ed) *Minding translation/Con la traducción en mente (Vol. Special issue 1)*, San Vicente del Raspeig: Universitat d'Alacant, 85-115.
- PACTE (2015) 'Results of PACTE's Experimental Research on the Acquisition of Translation Competence: The Acquisition of Declarative and Procedural Knowledge in Translation, The Dynamic Translation Index', *Translation Spaces* 4(1): 29-53.
- Robert, Isabelle S., Aline Remael, and Jim J. J. Ureel (2017) 'Towards a Model of Translation Revision Competence',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1(1): 1-19.
- Robert, Isabelle S., and Louise Brunette (2016) 'Should Revision Trainees Think Aloud While Revising Somebody Else's Translation? Insights from an Empirical Study with Professionals', *Meta* 61(2): 320-345.
- Robert, Isabelle S., Ayla Rigouts Terry, Jim J. J. Ureel, and Aline Remael (2017) 'Conceptualising Translation Revision Competence: A Pilot Study on the "Tools and Research" Subcompetence',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28: 293-316.
- Robert, Isabelle S., Jim J. J. Ureel, Aline Remael, and Ayla Rigouts Terry (2018) 'Conceptualizing Translation Revision Competence: A Pilot Study on the 'Fairness and Tolerance' Attitudinal Component', *Perspectives* 26(1): 2-23.
- Rochard, Michel (2004) 'La réviseur: Achille ou mentor?', *Traduire* 203, 59-69.
- Sager, Juan C. (1994) *Language Engineering and Translation. Consequences of Autom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Sedon-Strutt, Hugh (1990) 'The Revision of Translation Work', *Language*

- International* 2(3): 28-30.
- Terry, Ayla Rigouts, Isabelle S. Robert, Jim J. J. Ureel, Aline Remael, and Sabien Hanouelle (2017) 'Conceptualizing Translation Revision Competence: A Pilot Study on the Acquisition of the Knowledge about Revision and Strategic Subcompetence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8(1): 1-27.
- van Rensburg, Alta (2017) 'Developing Assessment Instruments: The Effect of a Reviser's Profile on the Quality of the Revision Product',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Themes in Translation Studies* 16: 71-88.

## 인터넷 자료

- Burkeman, Oliver and Richard Norton-Taylor (2004) 'The Spy Who Wouldn't Keep a Secret', *The Guardian*, February 26. Available at [www.guardian.co.uk/politics/spy2004](http://www.guardian.co.uk/politics/spy2004).
- EMT Expert Group (2009) 'Competences for Professional Translators, Experts in Multilingual and Multimedia Communication', The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January. Available at [http://ec.europa.eu/dgs/translation/programmes/emt/key\\_documents/emt\\_competences\\_translators\\_en.pdf](http://ec.europa.eu/dgs/translation/programmes/emt/key_documents/emt_competences_translators_en.pdf).
- United Nations (2019) 'What Ar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United Nations?', DAG, October 14. Available at <http://ask.un.org/faq/14463> (March 18, 2020).

[Abstract]

### Who Are 'Native Revisers' in Korea?

#### A Survey on L1 Reviser Qualifications,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Park, Jiyoung  
(Seoul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s Korean is a non-global language, it is a widespread practice for Korean translators to undertake translations into their B languages. To complement the shortcomings of L2 translation, native speakers of target languages are often hired as reviser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subjecting professional L1 revisers who edit English translations to identify who they are, what they think on translation revision competence (TRC) and how they are satisfied with the job.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are not merely L1 speakers of English, but also have degrees or professions relevant to the language. Second, their evaluation on TRC might have resulted from or reflect the limitations of their experiences as revisers, such as deficient source language (SL) competence, and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with translators. Third, as an increasing number of L1 revisers are expected to be hired from developing countries, studies should be conducted on the phenomenon for potential benefits in training of competent revisers.

▶ Key Words: L2 translation, translation competence, translation revision competence, translation quality, revision

▶ 주제어: 감수 능력, 번역 능력, 번역 품질, 원어민 감수, AB 번역

박지영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한영통역번역학과 조교수  
jy.interpreter@daum.net

관심분야: 저작권, 번역 품질 평가, 번역 산업

논문투고일: 2021년 8월 6일

심사완료일: 2021년 9월 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